

##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

2014년 라디오 강론(요한계시록)

### 85. 일곱째 재앙

2014. 08. 17.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일곱 재앙의 마지막 재앙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올바르게 인도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입니다.

[계16:17~21]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으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18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옴으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19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20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없더라 21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재로 인하여 하나님을 훼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러라.

1. 지난 시간까지 일곱 재앙의 여섯째 재앙으로 계시된 아마겟돈에 대하여 공부했습니다. 그것은 므깃도의 산이라는 뜻인데 곧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참 하나님이 누군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대결이 역사적 표상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것처럼 아마겟돈 전쟁이 역시 참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온 우주에 드러내어 확인하는 전쟁이 될 것이라고 공부했습니다. 그것은 19장과 20장에 가서 종결될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일곱째 재앙에 대하여 말씀을 나눌 시간이네요.

답: 예, 그렇습니다. 일곱째 재앙에 대한 말씀이 17~20입니다. 이때 성전에서 되었다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성전에서 이 음성이 들렸다는 것은 성전에서 봉사하시는 예수님의 봉사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게고넨”인데, “기노마이”의 완료형입니다.(?) 이 세상 임할 하나님의 진노가 끝났다는 말입니다. 일곱 재앙 처음에 선언했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마친다고요.(15:1) 그 일이 완성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루실 일이 하나씩 완성되었을 때에 이와 같은 의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 이루니라.”고 했습니다.(창2:1) 십자가에서 세상에서 이루실 구원의 봉사를 마치시고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요19:30)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에서 또 되었다고 하셔서 죄의 세상에 대한 진노가 마친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21:6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이루었다고 하십니다. 이것들은 창조주요 구원의 주이신 예수께서 창조와 구원과 심판과 새 창조를 위하여 한 단계씩 사업을 마치실 때마다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재앙을 쏟는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는 것을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과 함께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입증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18절입니다.

2. 계시록 내용중에 심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확증을 하는 말씀도 있습니까?

답: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8절을 읽어봅시다.

[계16:18]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옴으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 말씀은 계11:19에 기록된 내용을 옮겨놓은 것인데요, 그때 제가 이것은 뒤에 다시 이야기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기억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제 계11:19을 다시 읽어봅시다.

[계11:19]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언약궤가 보이고 거기에 함께 번개, 음성, 뇌성, 지진, 큰 우박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16:18에 그대로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11:19에는 성전 안 언약궤와 함께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일곱째 재앙 때에 그것이 땅에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 언약궤에 있던 것이 쏟아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일곱 재앙을 일곱 대접에 받은 천사들이 다 성전 안에서 나왔지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재앙은 성전 안 언약궤가 있는 곳에 보관 되어 있던 이 심판에 사용할 것들을 이제 재앙으로 땅에 쏟아졌으니 이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긴 것임을 확증한 것이지요. 그리고 성소봉사에서 지성소봉사가 심판의 봉사가 된다는 것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3. 설명을 들으니 정말 확실히 그렇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재앙은 상징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사건이군요?

답: 이 여섯째 재앙에 상징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이 혼합된 것을 보았습니다. 유브라데 강이 마른단든지, 동방에 오는 왕들이라는 것이나,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용과 짐승과 거짓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단든지 하는 표현은 다 상징적인 말입니다. 물론 아마겟돈이라는 말도 그렇지요. 그러나 이적을 행한다는 말은 실제적인 말입니다. 일곱째 재앙도 실제적인 것과 상징적인 것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번개, 뇌성, 음성, 지진, 큰 우박은 실제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는 말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큰 지진은 사람이 땅에 있는 후에 이처럼 큰 지진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예언한 것의 완전한 성취를 보여 줍니다. 이사야 24장을 읽어봅시다.

[사24:17~20] 땅의 거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울무가 네게 임하였나니 18 두려운 소리를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울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19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20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의 죄악이 중하므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이사야의 이 예언은 일곱째 재앙 때에 완전히 성취됩니다. 이 구절 다음을 읽어보면 이사야 24장 17절 이하의 말씀이 일곱째 재앙 때에 성취될 뿐만 아니라 1천년 후에 완전히 성취될 것을 예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생각하면서 이해하면 일곱째 재앙은 마지막 불 못에서 루시퍼와 함께 모든 루시퍼의 추종자들이 소멸될 때까지 포함되는 사건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나머지 구절도 읽어보도록 하지요.

[사24:21~23] 그 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22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음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23 그 때에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니라.

여기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음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는다고 한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옥에 갇히는 것은 무저갱에 갇히는 것을 뜻하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17~23을 죽 달아 읽으면 확실히 이해가 되지요. 사람이 땅에 있어온 이후로 그와 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고 하는 그 지진부터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는다는 말씀까지가 다 계시록의 일곱째 재앙의 시작부터 영원한 불 못의 소멸까지 포함되는 사건인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이사야의 말씀을 보니 목사님의 설명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번개와 뇌성과 음성과 우박과 지진은 모두 천연계 현상입니다. 일곱 재앙의 대부분이 천연계 현상과 관련이 있네요. 그런데 상징적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답: 일곱 재앙에 대하여 처음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사람들이 역사가 이어오면서 천연계를 너무 확대했습니다. 이제 천연계가 사람들이 망하게 한 만큼 그 망한 사실을 실제로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고대에는 신이 아닌 것을 신이라고 숭배하여 천연계를 망하게 하였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천연계를 부(富)를 쌓는 도구로 마구 이용하면서 망하게 하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지요. 그 천연계의 망가진 모습을 빼가 저리도록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나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의 생명과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이 사람을 망하게 하는 도구가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11:18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벌한다고 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징적인 면이 어떤 것이고 하면 19절입니다.

[계16:19,20]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20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없더라.

여기 큰 성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17장에 나오는 붉은 빛 짐승을 탄 음녀에 대한 것입니다. 이미 이 음녀에 대하여서는 어디서 말씀드렸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바로 이 음녀라고 했지요. 이 음녀로 표상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고 했습니다. 세 갈래로 갈라지는 것은 지진 때문인 것처럼 보입니다. 지진으로 어떤 도시가 세 부분으로 갈라지는 것 같은 표현인데 큰 성이 상징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진으로 인해 도시의 땅이 갈라지는 것은 아닐 것입

니다. 이것은 큰 성이 용과 짐승과 거짓선지자의 연합으로 형성되었는데 그것들이 뿔뿔이 갈라지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셋은 거짓 삼위일체를 형성한 존재들입니다. 이제 그것들이 거짓 하나님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지진에 땅이 갈라지는 것에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인간이 있어온 후로 이런 큰 연합으로 일치된 일이 없었는데, 그것이 도로 분열이 되어 서로 비난하고 죽이고 싸움을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역대하 20장에 기록된 여호사밧 골짜기의 심판에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역대하 20장에는 유다왕 여호사밧 때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 세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유다는 풍전 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왕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럴 때 레위사람 야하시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친히 싸우실 것이라고 전합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이에 백성들이 일찌기 일어나서 드고아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대하20:20) 그래서 이 싸움은 유다 군인들이 무기로 전쟁을 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였고, 전쟁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방법은 세 연합군이 서로 싸우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멸했지요. 일곱 재앙의 마지막 재앙은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집니다. 용과 짐승과 거짓선지자가 서로 싸우는 것으로 자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상징적인 표현으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고 한 것입니다. 역대하에서는 이것을 여호사밧 골짜기의 심판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라는 말 자체가 여호와와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각 섬들은 실제로 섬들이 침몰하는 일이기도 하겠지만 연합군들이 다 사라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산악들 역시 상징과 실재를 함께 표현한 것입니다. 아마겟돈 곧 므깃도의 산에 모인 것이 산이 없어지는 것과 함께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사라질 무렵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쏟아질 것인데, 한 달란트는 근수로 100근입니다. 약 60Kg쯤 됩니다. 저의 몸 무게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이런 우박에 견디어낼 무엇이 있겠습니까. 완전히 초토화합니다. 이때 아직도 숨이 붙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들이 이런 결과를 당하게 되는 이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이적을 행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보였던 용과 짐승과 거짓선지자의 연합체로 구성된 큰 성이 거짓이었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났지만 이제 그들은 그들이 믿었던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였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런 것을 그냥 놔두느냐고 원망할 것입니다.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재로 인하여 하나님을 훼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러라.”(계16:21) 그들은 그들에게 은혜가 베풀어지는 기간에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구주 예수님과 감화로 생명을 받도록 그렇게 간절히 호소하는 성령의 역사를 계속 평생토록 무시하였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기회를 다 놓쳐버린 것입니다. 남은 것은 악을 쓰는 것밖에 없지요. 그들의 운명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터닝포인트를 완전히 벗어났으니까요. 우리는 결코 그런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창조주 하나님이며 부활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그대로 믿어서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5. 예, 우리나라 애청자들이 함께 이런 재앙에 노출되지 않도록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 그 믿음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마 세 천사의 기별을 말할 때에 이야기 한 것 같기는 합니다만,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답: 예, 사실 세 천사의 기별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초였던 그것을 회복하라는 기별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로마4:17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롬4:17]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 말씀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은 부활의 주장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뜻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이끌어내신 창조주 하나님을 뜻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생명의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초 위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고 말하고 그가 믿음 하나님이 바로 창조와 부활, 곧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요8:39,40]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어늘 40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께서는 친히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구주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으로 아브라함의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아브라함의 일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에 예수께서 이 말씀하신 대상이 바로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 들입니다. 30절부터 40절까지 계속 읽으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지 않을 때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구나하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구약 창세기 15:6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읽어봅시다.

[창15:6]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과 여호와를 믿는다는 말은 지금 우리에게는 같은 표현일 수 있지만 아브라함 시대에는 같은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히브리말 “엘로힘”은 신(神)이라는 뜻의 보통명사입니다. 그냥 엘로힘을 믿으니라고 하면 그것이 성경의 엘로힘인지, 블레셋 사람들의 엘로힘인지 모압 사람들의 엘로힘인지 모릅니다. 성경의 엘로힘 여호와를 믿었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성경의 하나님이신 스스로 계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친히 공급하신 생명의 하나님이신 바로 그 여호와를 믿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로마4:17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설명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믿었다는 말이 바로 생명의 하나님이요 또 창조외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6.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까? 아브라함

당시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꼭 기억하는 것이 합당하지만 지금은 신약성경에 말한 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만 해도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답: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전혀 무리한 생각이 아닙니다만, 이미 13장에서 자세히 공부한 것처럼 가짜 삼위일체가 하나님 노릇을 하면서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만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속을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세 천사의 기별을 주셨고,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신다고 하셨지요.(벧전4:17) 그래서 참으로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확실한 표를 주신 것입니다. 그 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믿음생활을 하지만 스스로도 모르게 속고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아는 사단은 성경의 참 하나님을 믿는 표를 모방하여 짐승의 표를 만들어서 그것이 마치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표인 것처럼 세상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곧 부활의 하나님이신 생명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표를 확실히 믿음으로 지녀야 합니다. 그래야만 참으로 성경의 하나님 삼위일체 여호와를 믿는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7. 그 표가 무엇이었지요? 짐승의 표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자세히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 성경 구절을 찾아서 제 대답을 대신하지요. 설명이 필요하다면 조금 설명을 보탬 수 있겠지요.

[출31:13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14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 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15 옛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 칠 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16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17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옛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 칠 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18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이 말씀은 제7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인 표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이 새겨진 돌 판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계명입니다.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친필 계명을 바꿀 수 없지요.

[겔20:20]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었노라.

이 말씀은 여호와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표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고등종교들은 경전이

있습니다. 그 종교의 교리와 신조는 철저히 그들의 경전에 근거되어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의 경전은 신구약성경입니다. 그들의 교리와 신조가 성경전서에 없다면 그것은 성경을 경전으로 삼는 종교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기독교라고 하면서,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성경에 없는 것으로 교리와 신조를 만들었다면 그것은 순수한 성경의 종교가 아니지요. 성경에는 부활을 기념하기 위하여 주일(週日)의 첫째 날인 일요일을 주일(主日)로 지키라고 한 곳이 결코 없지요.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하여 성수하는 기독교는 100% 성경의 기독교는 아닙니다. 제7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야말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하나님 곧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증거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영혼불멸을 믿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불멸한다는 것은 죽음이 없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카톨릭이나 일반 개신교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부활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만 육체의 부활일뿐입니다. 그 육체에 들어가는 영혼이라고 그들이 생각하는 그 영혼은 불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이 아니지요.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것은 죽음이 생명의 정반대 현상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직 생명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요. 이것을 믿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호흡이 끊어져야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속에 사람을 잠그면 호흡이 확실히 정지합니다. 그것은 참말로 죽었다는 것을 표상합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일으켜 세워 물 밖으로 나올 때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표상합니다. 그런데 세례줄 때는 물속에 잠그지 않고 물을 머리에 적시는 순간에도 세례 받는 사람은 여전히 숨을 쉬고 있습니다. 영혼은 죽지 않는다고 믿는 영혼불멸을 신앙을 확인하는 예식이 되지요. 지나친 생각이라고 할는지 모르지만 저는 성경을 통하여 이 사실을 깨닫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7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침례를 행하지 않는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닐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나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저로서는 어쩔수 없지요. 이것은 제가 성경을 연구하며 깨달은 저의 신앙고백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 곧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부활과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8. 글썬요, 목사님의 말씀이 좀 과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렇다고 성경적으로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네요. 다음 시간에는 17장으로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마칠 시간이군요.

기도: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나눈 말씀에 아버지의 뜻을 잘못 증거한 것이 있으면 용서하시고 바르게 깨닫게 해 주시옵고, 저희들이 증거가 성경과 일치하고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다면 애청자들도 깨닫고 바른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